

2020 12 20 대림절 넷째 주일

본문 눅 1:26-38

제목 영원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

휴가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일년 내내 땀 흘리고 애쓴 우리는 정말 이 휴가를 기다립니다. 파아란 하늘 빛, 시원한 바닷 바람, 쏘아 물러오며 철석철석 부딪히며 부서지는 하얀 파도를 생각하며 휴가를 계획합니다. 지역을 정하고 적당한 호텔을 찾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과 머물러도 괜찮은 곳인지, 볼거리는 적당한지, 결정적으로 가격은 합리적인지를 따지며 원하는 휴가지를 찾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모든 계약을 마치고 때가 되어 휴가를 떠납니다. 모처럼 휴가에 들떠서 출발을 합니다. 날씨도 좋고 가는 길에 차도 안 막히고 모든 게 좋습니다. 이런 게 휴가지 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갑니다. 그리곤 목적지에 도착하여 몇 일간을 보냅니다. 서둘러 식사를 하고 미리 알아본 볼거리를 찾아 나섭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유 자작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큰 문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최고의 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휴가를 갖는 것이 쉽지 않고 대개 한 두가지 일이 터집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없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도 마음 속에는 여전히 남아 있는 공허가 있고 허전함이 있습니다.

공허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어쩌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허감은 거대한 문제 감정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쁘지 않고 우울하고 아픕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공허, 고통, 고뇌, 불완전함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더욱더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것에 더 깊이 더 빠르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수련회에서도 잠깐 드린 얘기입니다. 한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자꾸 **"배가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바르게 알려줬습니다.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고향 거야” “배가 아픈 것은 속이 비어서 그런거야” 그날 저녁 애 아빠가 얼큰 하게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서 “아유 머리아, 아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그것은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비어서 그런거야”

인생은 아픔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아픔입니다. 왜 그럴까요? 채워져야 할 것이 채워지지 않고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내 스스로 채울 수 없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존재, 그것도 영원한 절대적인 존재라야 가능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고, 다른 것은 더욱 공허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공허한 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왕을 바꾸어야 합니다. 일시적이고 불완전하며 근본적이지 못한 왕을 버리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왕을 새로 모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 모셔야 할 영원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참 왕은 누구 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왕이 세상에 올 것인데 그분이 어떤 존재 인지를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을 구할 구원자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32)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한국으로 치면 “철수”, 영어권으로 치면 “스미스”라는 이름과 같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흔한 이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정해준 데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 때문입니다.

예수는 히브리어 “예수아”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으로서 “**이에수스**”라 읽습니다.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온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유일한 구원자 이십니다. 죄로 망가진 나와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만이 우리 죄를 씻어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우리의 공허를 그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사 내 영혼을 살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2절에서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천사가 말합니다. 이어 35절 후반절에서 보다 분명하게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즉 두번이나 반복해서 마리아를 통해 나는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같은 신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한 신분을 가진 분, 즉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같은 하나님이되 아들의 위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의 위를 가진 하나님으로서 예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공허와 갈증 또한 완전하게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할~

셋째, 영원히 다스리는 왕입니다.

32절 후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예수만이 영원하고 참된 왕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며 충성해야 할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를 내 중심에 모시고 따를 때 우리 영혼은 인생의 진정한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를 종합하면 마리아에게서 날 예수는, 예수는 세상을 완전하게 구원할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영원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놀라운 얘기를 듣고 놀라서 묻습니다.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비록 2천년 전 갈릴리 나사렛의 못 배운 시골 아가씨였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아기가 생기는 것은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던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사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사 지극히 높으신 이의 큰 능력으로 된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지 여섯달이나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마리아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말은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됨으로써 오는 모든 비난과 약혼자와의 파혼과 처녀가 임신했다는 부정에 대한 처벌로써 죽음까지 각오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짚을 지겠다는 참으로 순결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처녀임에도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갖게 되었고, 결국 예수를 낳습니다. 완전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왕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할~

무려 2천년 전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으로 지금도 살아 계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공허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사람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지금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벼랑 끝 아슬아슬한 모험에서 오는 스릴감을 즐겼습니다. 술과 여자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돈을 산더미처럼 벌었다가 도박으로 다 날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뼈속까지 자아 도취에 빠져 살았습니다. 한창 잘 나갈 때는 전용 비행기를 두대나 소유했는데, 각각 한 시간을 운영하는데도 수천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그가 두대를 모두 띄우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였을까요? 비행기 한 대를 타고 가면서 창문 밖으로 나란히 날아가는 또 다른 한 대를 보면서 샴페인을 마시는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깔보고 놀리듯,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취미였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일삼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이라는 신**만을 섬겼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플로리다 주에 있는 집 근처의 해변을 거닐다가 희한한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내면에서 은은히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로버트야, 내가 너를 몇 번이나 구해줬는지 아느냐?

이제 그만 내 아들 예수를 통해 내게로 오너라”

로버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뜬금없이 왜 하나님의 음성인가?

또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결국 그는 예수를 믿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끝에 그의 친구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추천해주었고, 그는 그 책을 구해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연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딸과 그 딸이 속한 교회 식구들이 열심히 기도한 덕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를 직접 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버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그냥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저를 꼭 붙들고 절대, 절대 놓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변화가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냉담했던 마음이 누그러지고, 이기주의의 허물어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철저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뜨겁게 형성되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TV에서 보았던 한 대형교회 목사에게 연락했고, 세례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가 끝나면 자신의 변화에 대해 몇 마디만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후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주 단순한 언어와 어린아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그 예배당 안에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는 중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던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리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네 차례다’

로버트의 간증이 끝나자, 목사는 로버트가 최고의 설교를 전했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 초대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우르르 앞으로 몰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명이던 숫자가, 20명, 100명, 200명,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날 두번의 예배를 통해 무려 700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지 2천년하고도 20년이 더 지난 지금도 여전히 놀라운 소식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만이 나를 근원적으로 고치고 새롭게 왕이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새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가 채워집니다.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누가 이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까요?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어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처녀였음에도 예수를 잉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한편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나는 예수를 나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데도 왜 이렇게 여전히 공허하고 고통이 깊이 떠나지 않는가 하고 의문을 품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왕이신 그리스도와의 교제 보다 다른 것으로 위안을 삼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너무나 약하고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은과 금을 찾아 구하듯이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벧전 2:5)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신령한 집 같이 세워질 수 있습니까?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한없이 사랑하는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거룩과 주님의 성품이 내 인격 내 성품이 되는 것이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공허를 채우고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되는 것
입니다. 이로써 세속의 한 복판에서 삶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
사장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
보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을 통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를 새롭게 소생하게 하는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과 교제
하고 예수로 채우고, 예수로 닮아가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
기를 은을 찾듯, 금을 찾듯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영원한 왕이신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살게 하는 사랑과 힘과 능력을
날마다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기쁨 이 은혜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할~~

(음악과 함께 기도)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게 하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 평안 기쁨으로 소생케 하기 위해 오신 주님
은과 금을 찾듯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하고,
교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소서.

내 안의 공허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